

아케노베 광산의 채굴은 8 세기경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. 다양한 금속이 발견되었지만 구리와 주석이 가장 많이 채굴되었습니다.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아케노베는 나라의 도다이지에 있는 유명한 대불에 사용된 구리의 일부를 현상했다고 합니다.

에도시대(1603-1867 년)와 메이지 시대(1868-1912 년)의 정부 관리하에 아케노베 광산은 1896 년 미쓰비시 합자회사에 매각되었습니다. 1987 년에 폐광되어 2 번째 층보다 아래쪽 갱도는 모두 수몰되었지만, 상층 갱도는 교육 목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. 이 갱도는 가이드 투어를 통해 방문할 수 있으며, 광산 조업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광산 광차와 중후한 채굴 장비류도 전시되어 있습니다.